

18. 최상급, 비교급 표현하기

18강에서는…

- 1) 최상급의 표현을 알아봅시다.
- 2) 비교급의 표현을 알아봅시다.
- 3) 태국어 다양한 수량사를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의 새해 ‘쏭끄란’

1. 최상급의 표현

ที่สุด (^{ที}^{สูด} (티- 쯧)): 가장, 제일

① 주어 + 상태성 동사 + (수식어) + ที่สุด(^{ที}^{สูด}): 가장 ~ 하다

ณัฐ	ลรด-	계절
สงกรานต์	쏭끄라-	[태국의 설날] 쏭끄란

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 3 ณัฐ คือ ณัฐร้อน ณัฐฝน และณัฐหน้าว

(나이 뽀라태-ㅅ 태이 미- 싸-ㅁ 르두-, 크- 르두- 러-ㄴ 르두- 폰(f), 래 르두- 나우)

: 태국에는 여름, 우기, 겨울의 세 계절이 있습니다.

สงกรานต์คือณัฐร้อน จึงร้อนมากที่สุด

(쏭끄라-ㄴ 크- 르두- 러-ㄴ, 쯔 러-ㄴ 마-ㄱ 티- 쯧): 쏭끄란은 여름이라서 가장 덥다.

[EBS 초급 태국어]

ເຮືອສວຍເໜືອນກັບດරາຄົມ

(트ㅓ- 쑤-아이 므-안 깙 다-라- 크랍): 그녀는 연예인처럼 예쁘네요.

គេ ឈរសាយទីស្តីនិងវិនិច្ឆ័យ

(카, 트 + - 쑤-아이 티- 쏫 나이 로-○리-안 카): 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예뻐요.

② 주어 + 동작성 동사 + (목적어) + 수식어 + ที่สุด(티- ^K 쏟) : 가장 ~하다

ถนนข้าวสาร	타는 카-우 싸-ㄴ	[지명] 카오산 로드
เล่น	렌	놀다, (악기)연주하다, (운동)하다
เยอะ	여	많다

สงกรานต์ปีนี้ คุณไปไหนมาครับ

(^으 쟁꼬라-^ㄴ 빠-^ㄴ- 쿤 빠이 나이 마- 크^ㅏぱ): 올해 쟁꼬란에 당신은 어디에 다녀왔나요?

ជិត្យន៍បានដោលនៅក្នុងការសរសៃរបស់វា នៅពេលមិនមែនយើងទៅការ

(디-찬 빠-이 렌 나-ㅁ 티- 타-논 카-우 싸-ㄴ 카, 티-남 미- 콘 여 티- 췄)

: 저는 카오산 로드에 물놀이하러 갔어요. 그 곳에 사람이 가장 많아요.

วิ่ง	윙	뛰다, 달리다
รางวัล	라-○완	상, 상품

น้องชายวิ่งเร็วที่สุด จึงได้รางวัล

(너-○ 차-이 윙 레우 티- 췄, 췄 다이 라-○완): 남동생이 가장 빨리 뛰어서 상을 받았다.

2. 비교급 표현

กว่า (꽈-): ~보다

① A + 상태성 동사 + (수식어) + กว่า (꽈-) + B : A는 B보다 ~하다

ที่แล้ว	티- 래 우	지난, 지난간
ได้ยิน	다이 인	듣다

ฤดูร้อนปีที่แล้ว เกาหลีร้อนมากที่สุดค่ะ

(르두- 러- 냐- 빠- 티- 래 우 까올리- 러- 마- 캐 티- 췄 카)

: 작년 여름은 한국이 최고로 더웠어요.

ได้ยินว่า ปีที่แล้วเกาหลีร้อนกว่าไทยครับ

(다이 인 와- 빠- 티- 래 우 까올리- 러- 꽈- 타이 크람)

: 작년에 한국이 태국보다 더웠다고 들었어요.

น้ำขี้น	남콘	코코넛 밀크와 태국식 고추장을 넣은 빨간 국물	 (https://th.m.wikipedia.org/wiki/ไฟล์:Tom_yam_kung_maenam.jpg)
น้ำใส	남싸이	코코넛 밀크와 태국식 고추장을 넣지 않은 맑은 국물	 (https://www.flickr.com/photos/vscript/9048121173)

[EBS 초급 태국어]

ต้มยำน้ำข้นกับน้ำใส อันไหนอร่อยกว่ากัน

(恫^ຫາມ^ໝ ນຳມ^ໝ ກັບ^ໝ ນຳໄສ^ໝ, ອັນໄໝໂຮງໝຍກວ່າຄະ)

: ‘남콘(빨간 국물)’과 ‘남싸이(맑은 국물)’ 둘다 스프 중 어느 것이 더 맛있나요?

ผมคิดว่า น้ำใส่อร่อยกว่าครับ

(ປົມ^ໝ ຄີ^ໝ ວາ-^ໝ ນຳສາຍ^ໝ ທ່າລຸ-^ໝ ຝາ-^ໝ ກຽບ^ໝ): 저는 ‘남싸이(맑은 국물)’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② A + 동작성 동사 + (목적어) + **수식어 + ที่ว่า (꽈-)** + B: A는 B보다 ~하다

ຈ່າຍ	짜-이	(금액을) 내다, 지불하다
เงิน	응원	돈

ใครจ่ายเงินมากกว่าผมครับ

(ກ່າວ^ໝ ຈ່າຍ^ໝ ເງິນ^ໝ ມາ-^ໝ ຝາ-^ໝ ພົມ^ໝ ກຽບ^ໝ): 누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냈나요?

迪ฉันจ่ายเงินมากกว่าคุณครับ

(ດີຈຳນ^ໝ ຈ່າຍ^ໝ ເງິນ^ໝ ມາ-^ໝ ຝາ-^ໝ ຄູນ^ໝ ກາ^ໝ): 제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냈어요.

3. 태국어의 수량사

- ‘수량사’란?

: 수량사는 명사의 수량이나 지칭할 때, 그 명사의 특징에 따라 붙이는 말

ແກ້ວ	깨-우	잔을 세거나 가리킬 때
ຂວາດ	គູ-ອັດ	병을 세거나 가리킬 때
คน	ຄອນ	사람을 세거나 가리킬 때

[EBS 초급 태국어]

คัน	칸	차량, 숫가락, 포크, 우산을 세거나 가리킬 때
คู	쿠-	쪽으로 된 물건을 세거나 가리킬 때, (신발, 양말, 젓가락 등)
ตัว	뚜-아	동물, 의복, 가구 등을 세거나 가리킬 때
ลูก	루-↑ㄱ	동그란 물체, 열쇠, 과일, 산, 태풍 등을 세거나 가리킬 때
ห้อง	허-^ㅇ	방을 세거나 가리킬 때
อัน	안	기타 수량사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거나, 물체의 형태가 뚜렷하지 않을 것을 세거나 가리킬 때

- '숫자 + 수량사 + 지시형용사'의 순서로 위치시킨다.

ขอกาแฟเย็น 2 แก้วครับ

(커- 까-페-(f) 옛 써-^ㅇ 깨-우 크랍): 차가운 커피 2 잔 주세요.

เสื้อตัวนี้เล็กมากค่ะ

(쓰-아 뚜-아 니- 렉 마-↑ㄱ 카): 이 옷은 많이 작아요.

อันนี้เท่าไรครับ

(안 니- 타오라이 크랍): 이건 얼마인가요?

ใครเรียกแท็กซี่ 2 คนนี้ค่ะ

(크라이 리-^악 택씨- 써-^ㅇ 칸 니- 카): 누가 이 택시 두 대를 불렀나요?

4. 대화: 최상급, 비교급 표현하기

นำ: 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มี 3 ฤดู คือ ฤดูร้อน ฤดูฝน และฤดูหนาว
(나-으) (나이 빼라테-ㅅ 타이 미- 싸-ㅁ 르두-, 크- 르두- 러-ㄴ 르두- 폰(f), 래 르두- 나-우)
: 태국에는 여름, 우기, 겨울의 세 계절이 있어요.

สงกรานต์คือฤดูร้อน จึงร้อนมากที่สุดคง
(쏭끄라-ㄴ 크- 르두- 러-ㄴ, 쭁 러-ㄴ 마-ㄱ 티- 쏟)
: 쏭끄란은 여름이라서 가장 더워요.

ปอนด์: ฤดูร้อนปีที่แล้ว เกาหลีร้อนมากที่สุดครับ
(빼-ㄴ) (르두- 러-ㄴ 빼- 티- 래-우 까올리- 러-ㄴ 마-ㄱ 티- 쏓 크랍)
: 작년 여름은 한국이 최고로 더웠어요.

นำ: ได้ยินว่า ปีที่แล้วเกาหลีร้อนกว่าไทยคง
(나-으) (다이 인 와- 빼- 티- 래-우 까올리- 러-ㄴ 꽈- 타이 카)
: 작년에 한국이 태국보다 더웠다고 들었어요.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그녀는 연예인처럼 예쁘네요.
-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예뻐요.

-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나요?
- 제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냈어요.

- 남동생이 가장 빨리 뛰어서상을 받았다.
- 차가운 커피 2잔 주세요.

< 태국의 새해 '쏭끄란' >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ประเพณีสงกรานต์ไทย.jpg>)

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전통적 새해는 우리의 음력설과는 많이 차이가 있다. 태국에서는 태국식 설날을 ‘쏭끄란’이라고 부르는 데, 이는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태양이 양자리에 들어서는 별자리의 이동을 의미한다. 쏭끄란은 인도 힌두교 봄 맞이 축제인 홀리축제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통적으로는 태국력에 따라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유동적이었지만, 양력을 사용하면서 매년 4월 13~15일로 고정되었다.

비록 쏭끄란이 불교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진 않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는 태국에서는 새해 첫날인 이날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이루어진다. 우선 사람들이 아침부터 사원을 찾아 승려에게 보시를 한다. 그리고 불상에게 물을 뿌려 불상을 씻어내는 ‘관불의식’을 한다. 승려와 웃어른의 손에 물을 뿌리며 덕담을 듣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원에 모래탑을 쌓는다. 이 날은 우리나라의 음력설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 데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식사를 함께 한다. 가족과 이웃끼리 서로 서로 어깨 등에 물을 살짝 끼얹어 주며, 새해에도 건강하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다만 요즈음은 물을 뿌리는 놀이로 많이 바뀌었다. 이 시기에 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안전에 유의하며 한번쯤 행사에 참여해 보도록 하자.